



이 면 우 교수의

신창조론

한국경제신문사



18세기 후반 조선조의 집권층은 당쟁과 공리공론(空理空論)으로 소일하였다. 왕조는 부패하였고 목민관들의 수탈은 극에 달하여 농민들은 소출의 8할을 세금으로 빼앗겼다. 농민은 농촌을 떠나 유랑하였으며 민심은 흉흉하였다. 당시 일군의 실학자(實學者)들은 농지개혁을 주장하였고, 양반과 중인들의 생산활동을 권장하였으며, 과거제도를 개혁하여 실용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정당한 요구는 집권층에 의해 말살되었으며, 실학파(實學派) 학자들은 모두 참형을 당하거나 귀양살이로 일생을 마감하였다. 세종대왕 이후 400년만에 나타난 모처럼의 국가발전 방안이 이를 주도해야 할 집권층의 필사적인 방해로 무산되었다.

왜 역사가 주는 선물인가?

100년이 지난 19세기 중엽, 탐관오리의 폭정을 견디지 못한 농민들이 동학운동(東學運動)을 일으켜 국가개혁을 시도하였다. 농사만 짓던 농민들이 관군에 대항하여 일어난 것이다. 그러나 전라도 고부에 설치되었던 이들의 집강소(執綱所)는 일 년이 채 못되어 폐쇄되었고, 녹두장군(綠豆將軍) 전봉준(全琫準)을 비롯한 동학군은 그들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참형을 당하였다. 그 후 조선조는 쇠락(衰

落)의 길을 걸었고, 대한제국을 거쳐 한일합병(韓日合併)으로 이어졌다.

1866년에는 제너럴 셔먼 호가 강화도에 나타나 우리에게 수교를 요구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일본 동경만에는 흑선(黑船)을 타고 온 페리 제독이 일본에게 문호개방을 요구하였다. 일본의 집권층은 서양문물을 배우는 국가발전의 기회로 흑선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우리는 쇄국(鎖國)의 길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

또다시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에는 IMF라는 제2의 흑선이 나타난 것이다. 그들은 지원의 대가로 시장개방(市場開放)과 기업의 인수합병(引受合併)을 요구하고 있다. 200년 전의 탐관오리들은 농민을 수탈하였고, 100년 전의 집권층 대신들은 나라를 팔아 넘겼으며, 오늘의 엘리트 관료들은 30여 년 동안 피눈물 나도록 노력을 기울여 얻은 경제발전을 망치고 IMF에 급전(急錢)을 요구하였다. IMF가 우리를 침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IMF를 불러온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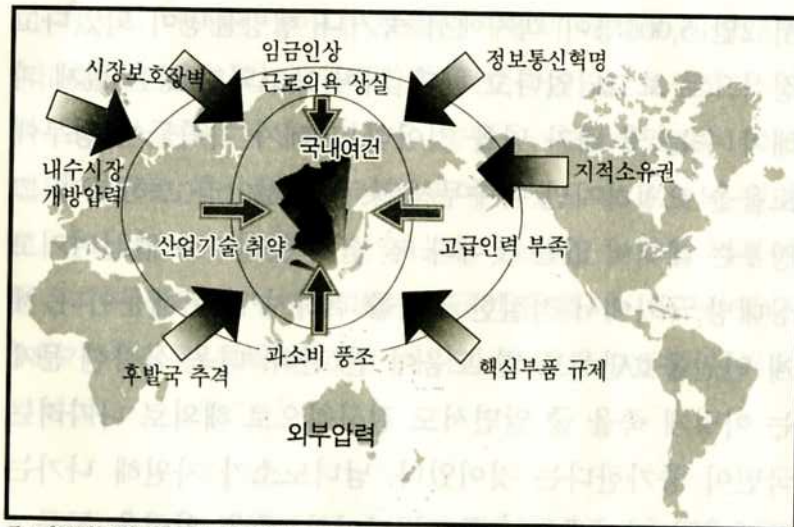
IMF는 우리 조상의 얼이 우리에게 베푸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하여야 한다. IMF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겠

는가? 조선조 집권층이 실학파들을 처형했던 것이나 대한제국 대신들이 나라를 팔았던 것과 유사한 결과로 이어졌을 것이다. 200년만에 처음으로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기회가 온 것이다. 실상(實狀)을 알았으니, 이제 대책을 시급히 세우고 결연한 의지로 문제를 풀어 나가면 되는 것이다.

국가경제가 파탄이 나면 어떻게 되는가? 얼마 전에 국제 포럼에서 만난 동남아시아 국가의 장관은 원망이 많았다. 부패정권으로 경제파탄이 난 후 약 400만명의 국민이 세계 각국으로 일거리를 찾아 나섰다고 하였다. 이들 중에서 2만 5,000명이 객지에서 죽거나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정식으로 보고되었다고 한다. 미처 보고되지 않은 실제 피해자 수는 몇 배가 넘을 것이다. 피해자 가족들이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지만 속수무책(束手無策)이라고 하였다. 그 정부는 대책이 없는 것이다. 잘 살지 못한다고 업신여기고 상대방 국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계 인권옹호단체도 별 도움이 안 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죽을 줄 알면서도 결사적으로 해외로 나가려는 국민이 증가한다는 것이었다. 남녀노소가 자원해 나가는 21세기형 정신대(挺身隊)인 것이다.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왜 나가는가?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이다.

1975년부터 시작된 위기이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필자는 1986년부터 우리 국가산업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떠들고 다녔다. 발설하지 않고 혼자 생각한 것은 이보다 훨씬 이전이다. 1992년 《W이론을 만들자》라는 책에서 우리 국가경제가 십면초가(十面楚歌)에 둘러싸여 있다고 보고하였고, 1995년 출간된 《신사고 이론20》에서는 우리나라가 열 개의 악순환(惡循環) 고리로 얽혀 있어 폭포수에 쓸려 내려가는 것 같은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주: 《W이론을 만들자》(1992년)

십면초가(十面楚歌)

1960년대에 시작된 국가재건운동(國家再建運動)과 새마을운동은 전쟁으로 초토화된 상황에서 잘 선택한 정책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1975년경부터 우리 산업의 틀을 바꿨어야 옳았다. 기술도입과 단순모방만으로는 발전에 한계가 있는 법이고, 값싼 임금이나 풍부한 노동력, 가격경쟁력도 우리의 전유물(專有物)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이런 구호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지 않은가?

1975년까지는 선진국의 산업여건과 우리의 욕구가 묘하게 맞아 떨어졌고, 중국과 동남아 후발국들도 긴 잠에서 미처 깨어나지 못하였을 때이다. 우리와 경쟁적으로 발전하던 홍콩은 금융과 서비스로, 싱가포르의 세계무역으로, 대만은 부품산업으로 각각 다른 길을 가고 있었다. 적군 없는 곳으로 진격하는 셈이었고, 저임금(低賃金) 양산조립(量產造立)은 한국에게 보장된 독무대(獨舞臺)였다.

조선조의 목민관(牧民官)과 중인(中人)들이 계속 농민의 희생을 강요했듯이, 오늘날의 관료와 기업인들은 고임금-저효율이 해소되어야 문제가 풀린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다시 전 국민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한다. 허리띠만 졸라매면 국가위기가 해소되는가? 1975년식 사고방



주: 《신사고 이론20》(1995년)

개발도상국 산업의 악순환 - 10개 연결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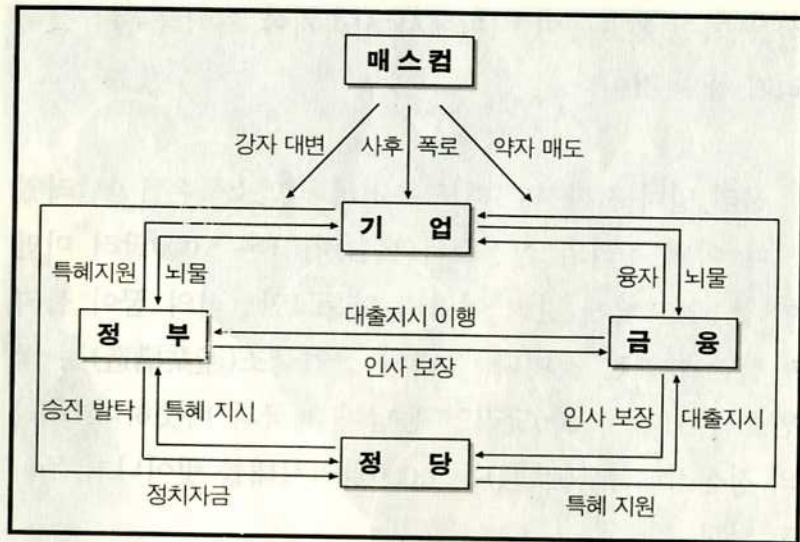
식을 가진 관료들이 시야에서 사라져야 위기극복의 실마리가 풀릴 것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국민소득은 1만달러였으나 이제 우리의 실질소득(實質所得)은 5,000달러 미만이다. 30년 넘게 걸려 어렵게 이룬 1만달러의 꿈이 불과 며칠만에 깨진 것이다. 우리의 산업구조(産業構造)는 국민소득 3,000~4,000달러인 동남아 제국과 비슷하며, 우리의 정신상태(精神狀態)는 1,000달러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먹이사슬의 공생관계는 견고하다

1997년 10월에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 창립기념일에 동료교수와 학생들로부터 강연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왜 자꾸 우리나라가 위기(危機)라고 하는지 설명해 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반도체를 공부하는 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국가위기를 반도체 회로(MPU)로 표현하여 설명하였다.

그림에 나타났듯이 정통성(正統性)이 결여된 독재정권(獨裁政權)의 집권층은 권력과 금권정치(金權政治)로 일



부정부패의 구조

관하였다. 돈이 많이 필요했을 것이다. 정부의 관료는 정치인과 관계가 좋아야 한다. 발탁(拔擢)과 등용(登用), 승진(昇進)과 영전(榮轉)에서 실력 있는 정치인과의 교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기업인은 끊임없는 사업확장을 위해서 금융지원(金融支援)과 차관도입(借款導入)이 필요하였다. 이런 일들은 정치인과 관료의 도움 없이는 될 수 없었다. 금융인은 은행경영보다 정치인과 관료들이 창밖에서 알려 주는 대출지시 신호(Window Guidance)를 잘 따라야 했다. 임명권

자 아닌가?

국가연구소는 불어나는 연구소 살림에 필요한 연구비를 더 따내기 위해서라도 구호가 앞서는 그림자 같은 연구(Shadow Research)에 몰두하였다. 대학은 학생 정원을 더 늘려 받기 위해 잘못된 교육정책에 순응하였다. 언론도 예외는 아니었다. 서슬이 시퍼런 사람에게는 친절하며, 넘어진 사람에게는 가혹할 정도로 준엄하였다. 이것이 부패의 구조이고 먹이사슬의 공생관계이다. 이와 같은 공생관계 때문에 잘못된 관행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고 부정으로 일관하였다. 간혹 미처 숨기지 못해 노출되었던 문제도 곧 잘 될 것이라는 낙관론으로 일관하였다. 공생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재원을 낭비하였고, 시간을 끌며 사태를 호도(糊塗)하여 문제를 악화시켰다.

반도체연구소의 교수와 학생들의 표정이 심각하였다. 한 젊은 교수가 물었다. 이렇게 반도체 회로같이 짝 짜인 구조가 개선되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하냐고. 그때 필자가 한 대답은 듣기 민망한 내용이다. 몇 군데가 큰 소리를 내며 망하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야 우리가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할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IMF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IMF가 없었다면 그나마 이만큼 현실을 파악하고 국가의 장래를 진심으로 걱정할 수 있었겠는가? 어려운 처지를 당했을 때, 체념하면서 차라리 잘 됐다고 각오를 다진다는 고사성어가 있다. 흔히 전화위복(轉禍爲福)이라고 하며, 위장된 축복(blessing in disguise)이라고도 표현한다.

부산스러운 반응

IMF 이후 한탄(恨歎)과 자조(自嘲)의 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온다.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고 외채를 갚자고 한다. 그러나 외채는 어떻게 갚는가? 돈을 벌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수출밖에 방법이 없다. 허리띠만 졸라매면 수출도 늘어나는가?

외채상환에 관한 요즈음 논의는 마치 교통사고 현장에 서 이미 부서진 차 값을 어떻게 보상하겠냐고 논쟁하는 것과 같다. 중요한 것이 빠졌다. 사고로 중상을 입은 부상자를 후송(後送)하고, 치료(治療)하고, 재활훈련(再活訓練)을 거쳐 다시 생활인으로 복귀시키는 방법이 더욱 중요한 것 아닌가?

IMF를 접하는 우리의 반응은 반신불수(半身不隨) 환자 같이 한쪽만 움직이는 것이다. 나라를 움직이는 수레에는 두 개의 바퀴가 있다. 한 바퀴는 경제이고 다른 바퀴는 산업 경쟁력이다. 경제가 한 집안살림에서 '가계부 작성(家計簿作成)'에 비유된다면 산업경쟁력은 '가계의 수입원 창출(家計收入源 創出)'에 해당할 것이다. 부서진 차체의 수리비를 갚아 나가는 과정을 경제(經濟)라고 본다면, 부상자 치유는 '산업경쟁력(產業競爭力)' 회복방안이 될 것이다.

정신 없이 추락하고 있는 수출을 늘리는 방법은 무엇인가? 다른 한 수레바퀴를 보강하며 산업경쟁력을 새로이 키우는 길밖에 없다. 그러니 우선 모두가 힘을 아끼면서 냉정한 시각으로 사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국가발전의 뜻을 새로이 정의하고(Redefine), 새로이 초점을 맞추며(Refocus), 발전방향을 새로이 가늠하고(Reorient), 새로운 길을 다시 찾아 나서야 하며(Research), 정부와 기업의 조직을 새로 구축하고(Restructuring), 정책과 사업내용을 혁신(Reengineering)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국가 분위기를

를 쇄신하는 부활정신(Revival)과 국민의 역동적 기운(Revitalization)을 북돋아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앞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 30년간 눈을 감고 달리며 치닫는 과정에서 체내에 널리 퍼진 모든 악습과 폐해를 일시에 떨치고, 허망한 경제지표와 부질없는 통계숫자에 현혹되어 허덕여야 했던 나래를 잠시 접고 다시 땅으로 내려앉아야 한다(Regrounding).

고스톱을 하다가 파투가 나면 우리 민족은 어떤 조치를 취하는가? 패를 많이 모아 놓은 기득권자가 제아무리 큰 소리로 불평을 하더라도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두말 없이 화투를 새로 섞는다(Reshuffle).

2

우리 산업의 전통 —꽃들은 어디로 갔나?—

